

“추석 황금연휴에 일해야죠”… 단기 알바 인기

구인사이트 수요 폭증…구직자들 자기이력 소개도 명절 특수에 급여·처우↑…보안업체 근무 등 관심

최장 10일간(10월 3~12일)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평소보다 급여와 처우가 좋은 명절 기간에 ‘묵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몰리면 서 일자리 플랫폼이 북적이고 있다. 18일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앱) ‘추석 알바’ 분류에는 추석 연휴 기간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등록됐다. 광주·전남지역 택배·보안·판매업체는 채용공고에 최저시급(1만30원)보다 많

은 보수를 제시하면서 ‘급구’, ‘단기’, ‘초보 가능’ 문구를 내걸며 구직자 모집에 집중했다. 이중 광주 한 보안업체가 올린 ‘보안 근무 단기 알바’ 글은 2000여 조회수와 함께 18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근무 조건은 19일부터 10월 5일까지(오전 8시~오후 7시, 오후 7시~다음날 오전 8시) 병원 보안 근무 및 안내요원으로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분의 지원을 요청했다.

후기에는 ‘보안업체가 분위기가 딱딱할 줄 알았지만 현장 분위기가 좋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보람된 느낌이 들었다’ 등 긍정적인 글이 줄을 이었다. 광주 남구의 한 택배업체는 ‘시급 1만5000원’,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가 있어 이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9월23일부터 10월2일까지 구직자를 모집했다. 아르바이트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의 추석 알바 채용관에서도 택배 상하차 작업,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광주주제국은 택배 물량 폭증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소포 상하차 보조·지원 업무에 참여할 아르바이트 5명을 모집 중이다.

소포 상하차 보조는 25~29일(주말 제외) 오후 1~6시이며, 소포 상하차 지원은 23~26일, 29일~10월1일(주말 제외) 6일간 오전 8시~오후 2시(점심시간 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NC웨يب 총점점 주차요원 모집에는 청년의 관심이 높았다. 10월 6~9일 시급 1만1000원에 초보 가능, 친구와 함께 근무 가능, 지하철 인근에 위치 등 장점이 기재됐다. 이 같은 장점으로 20대 지원자가 76%를 차지했다. 여수의 한 식당에서는 홀서빙 1명, 주방 설거지 1명을 모집하고 있었다. 근무조건은 10월 2~12일(오전 8시~오후 3시)이며, 시급 1만4000원(주휴수당 포함), 점심 제공을 내걸었다.

일부 구직자들은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기 위해 인재 정보 등록란에 ‘열정과 체력이 준비된 인재입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준비된 인재’라는 제목으로 이력서를 등록했다. 이력 사항으로 ‘추석 연휴에 카페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추석 단기 배송지 임력 전산 업무’, ‘지게차 자격증’ 등을 기재하며 자신을 홍보했다. 대학생 김모씨(25)는 “추석 연휴가 길어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며 “고향에 내려가서 집에만 있을 바에는 자격증, 토익시험 비용이라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단기알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약사회 “창고형 약국 개설 보류해야”

광산구 수완지구·서구 쌍촌동 2곳 오픈 예정

광주 약사단체가 도심에 들어서는 ‘창고형 약국’ 2곳에 대한 개설 보류를 촉구했다. 광주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창고형약국 개설을 강하게 반대한다”며 “제도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광산구청은 개설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리활성물질로 약사의 철저한 관리와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창고형 약국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복약지도를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 지역 내 700여개 약국 생태계가 붕괴하고 동네 단위 보건 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다”며 “개설 예정지인 주차빌딩을 약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심각한 교통난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창고형 약국 개설 보류 △창고형 약국 위생성 대책 마련 △매대 진열식 판매로 인한 약물 오남용 방지책 수립 등을 광산구청에 요구했다.

현재 광주에는 창고형 약국 개설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 되고 있다. 서구 쌍촌동에 262㎡(76평) 규모로 들어서는 창고형 약국은 지난 8일 관련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막바지 영업 준비에 한창이다. 광산구 수완지구에도 약 760㎡(230평)의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연다. 해당 약국은 지난달 개설 신고를 접수한 뒤 시설 미비로 자진 취하했다. 현재 개설 신고를 준비 중이며, 이날 말 혹은 내달 초 개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경기 성남시에서 첫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약국 개설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없는 한 개설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임정호 기자 jh4415@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광주시서구새마을회(회장 배창숙) 지도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18일 지하 다목적실에서 ‘사랑의 송편 빚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빚은 사랑의 송편은 관내 소외계층과 독거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북구의회 도교연수단, 온누리상품권 환급금 ‘미반납’

기 반납금은 불용처리할 듯…기내식 비용도 반납 후쿠오카팀, 주민보고회로 연수 투명성 높여 ‘대조’

공무국의출장 시 여행사 대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할인 차액금을 유용하려 했던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추가 환급금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했던 시기가 이벤트 기간이라 추가 환급금이 지급됐는데, 이를 제외한 할인 차액금만을 반납한 것이다. 때문에 공적 예산으로 인한 추가 환급금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17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도교연수단이 공무원의출장 여비를 반납했다. 반납금은 444만4710원으로, 개인별로 직위와 나이 등을 고려해 32만4410원부터 27만860원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도교를 방문했다. 당시 이들은 정액으로 받은 출장비 4443만1180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 대금으로 결제한 뒤 할인받은 10% 차액금을 즉시 반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 발생한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인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활용(기부)하려다 출장을 다녀온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반납했다. 문제는 추가 환급금의 반납 여부다. 도교연수단이 여행사 대금을 결제했던 시기인 6월 말~7월 초는 디지털 온누리 10% 환급 행사 기간이었다. 이 기간 최대 2만원씩 환급금이 지급됐는데, 도교연수단은 온누리상품권이 월 최대 2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함에 따라 2차례에 나눠 여행사에 대금을 지급했다.

즉, 4만원의 환급금을 지급 받아놓고, 반납한 여비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도교연수단은 식비 7만5000원씩을 토해냈다. 김포에서 도교, 도교에서 김포 이동 시 국적이 타고 기내식을 이용, 식비가 중복 지급돼 기내식 비용까지 별도로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반납 의사를 내비쳐 할인 차액금을 반납 받았고, 환급금에 대해서는 따로 반납 의사를 전해오지 않았다. 반납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며 “반납된 예산은 다음 추경 때 불용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도교연수단과 달리 후쿠오카연수단은 대조되는 행보를 보였다. 후쿠오카연수단은 개원 이래 최초로 공무원의출장 주민보고회를 열고, 출장 경비 집행 내역과 활동 내용을 소상히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겠다 출장 전부터 주민보고회를 기획, 북구에 접목할만한 정책을 공유해 호평받았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해안 고속도로 광주·전남 구간 교통사고 ‘최다’

광주·전남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최근 6년(2020~2025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서해안선이었다. 18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상자는 19명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고속도로는 서해안선이었다. 사고는 17건이었고 사상자는 11명이었다. 이어 호남선 7건(5명 사상), 광주~대구선 11건

(2명 사상), 고창~담양선 2건, 순천~완주선 8건(부상 1명), 무안~광주선 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설·추석 명절 교통사고는 총 167건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 수는 총 115명(사망자 13명·부상자 102명)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는 경부선(24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주시태만 교통사고가 96건(57.8%)으로 절반 넘었다. 과속(18건)과 운전자기타(17건), 안전거리미확보(14건), 졸음운전(13건)이 뒤를 이었다. 임영진 기자 looks@

‘위험천만’ 농기계 사고…전남 ‘전국 최다’

2019~2023년 365건 집계…전국 20% 달해

영농철 농기계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농촌진흥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95건 중 20.3%

에 달하는 수준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지는 경우 사망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15.2%(1795건 중 274명)이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 1.4%에 비해 10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남에 이어 경북 305건(16.9%), 충남·경남 219건(12.2%) 순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전국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444건 △2020년 367건 △2021년 364건 △2022년 330건 △2023년 29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전체 1795건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이에 강명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18일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농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번기마다 되풀이되는 농기계 사고는 더 이상 농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고령 농민 맞춤형 안전교육, 농기계 보조장치 보급, 농로 환경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날씨

☀️ 예보 06:18 달빛 03:26
☁️ 예전 18:34 달빛 17:21



광주	20~26
목포	21~26
여수	21~26
순천	20~26
구례	19~26
광주	19~27
임도	21~27
흑산도	21~26
고흥	20~27
진도	20~27

목포	밀물(고) 00:30 / 12:37 썰물(저) 05:59 / 17:58
여수	밀물(고) 07:41 / 20:04 썰물(저) 01:42 / 13:35

상승 농기계 절도범 ‘쇠고랑’

만년필 ○~심야 시간대 농가에서 농기계를 상승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쇠고랑행. 광주 광산경찰은 18일 인적이 드문 농가에서 수차례에 걸쳐 농기계 등을 절취한 혐의(상습절도)로 50대 A씨를 구속.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도덕동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비료 살포기를 가져간 혐의를 받아. 피해 농가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 이후 지난 15일 오후 8시께 A씨를 체포.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농기계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는 한편, A씨에 대한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 임정호 기자

주암호 ‘조류경보’ 해제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주암호에 발령됐던 ‘조류경보’가 28일 만에 해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8일 주암호에 발령됐던 ‘관심단계’의 조류경보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암호 인근에는 지난달 21일과 28일 차례로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조류경보는 하천이나 호수에서 유해 남조류(녹조류) 세포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발령되는 수질 경보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폭염일수는 29.6일로 평년 22.3일 대비 크게 늘었으며 국지성 호우 또한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기상여건 등으로 주암호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윤용성 기자 yoi404@

지난 8월5일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한 갈나무밭에서 작업을 하던 A씨(80)가 바닥에 쓰러져 소진 채 발견됐다. 이날 A씨는 조작하던 농약살포기와 갈나무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14일 여수시 화양면 한 밭에서 7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로타리(발갈이) 작업을 하기 위해 경운기를 몰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